

헝가리 유람선, 크루즈선과 충돌 '침몰' 정부, 합동 신속대응팀 급파

한국인 33명 탑승... 외교부·소방청 등 강경화 외교장관이 본부장 맡는 중대본 구성 '일정 취소' 문 대통령, 총력대응 지시... "가용 자원 총동원 구조, 수시 상황 보고받아"

30일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우리 국민 33명을 태운 유람선이 침몰하자 정부와 청와대는 피해자 구조와 사고 수습을 위한 총력 대응 체제에 돌입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지난 29일(현지시간·한국시간 30일 오전 4시)께 부다페스트 다뉴브강 부다지구에서 우리 국민 단체여행객 33명(가이드 3명 포함)과 헝가리인 승무원 2명이 탑승한 유람선이 크루즈선과 충돌하여 침몰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외교부는 "우리 국민 33명 중 현재 7

명이 구조됐고 실종자 19명에 대한 구조작업이 진행 중이며, 사망자는 7명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주헝가리대사관이 사고 인지 즉시 현장대책반을 구성해 영사를 현장에 급파, 헝가리 관계당국과 협조해 피해상황을 파악하고, 병원에 후송된 구조자에 대한 영사조력을 제공하고 있다"며 "여행사 측과 향후 대책을 협의하는 등 필요한 영사조력을 지속 제공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외교부 본부는 재외동포영

사실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재외국민 보호대책본부를 구성해 신속한 구조작업과 필요한 영사조력이 제공될 수 있도록 대응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를 구성하고 상황 관리에 돌입했다. 강 장관은 중대본부장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이날 제르나 라시보 포괄적 핵심업무지조약기구(CIBTO) 사무총장의 면담 일정을 취소했다.

정부는 또 헝가리 현지에서 외교부, 소방청 등이 참여하는 정부 합동 신속대응팀을 현지에서 급파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예정돼 있던 공식 일정을 연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낮 12시부터 일본 수산물 분쟁 최종심에서 승소 판결을 이끈 산업통상자원부 직원과 우리나라의 유람연합(EU) 화이트리스트 등 장애에 기여한 식품의약품안전처 직원들, 강원도 산불 조기 진압에 기여한 소방 공무원 등을 청와대로 초청해 격려할 예정이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으로부터 사고 상황을 보고받고 헝가리 정부와 협력해 가용한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 구조활동을 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헝가리 현지에서 신속 대응팀을 급파하고, 국내에 있는 피해자 가족과 연락 체계를 유지하면서 즉각적으로 상황을 공유하라고 주문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현재 이 시간에도 정의용 안보실장이 중심이 돼 외교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국방부 장관,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소방청장 등이 모여서 수시로 화상회의를 실시하고 있다"며 "회의 내용들은 문 대통령에게 수시로 보고가 됐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보고를 받은 시간이 언제인가 라는 질문을 받고 "보고 시간을 일일이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보고가 이뤄졌고 신속하게 조치가 이뤄졌"다고 답했다. 그는 또 "외교부 장관을 중심으로 중대본이 구성돼 운영될 텐데 외교부, 행안부, 소방청 등 정부 합동 신속대응팀이 구성되는 것도 고려되고 있다"고 말했다. /뉴스



헝가리 부다페스트 다뉴브강에서 33여명이 탄 유람선 '하블레아니'가 침몰해 구조대가 실종자 수색작업에 투입되고 있다. 앞서 3명이었던 사망자 수는 7명으로 늘었으며 외교부 당국자는 "한국 단체 관광객이 해당 유람선에 탔던 것으로 보인다"며 "정확한 내용은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평화당 정동영 대표, 내달 1일 에코시티 정주여건 개선 토론회

봉암중 신설·대형마트 입점 등 주요 현안 다뤄질 예정



민중평화당 정동영 대표가 전주시에 공동으로 6월 1일 오후 5시 에코시티 수변광장에서 '전주시민 생활불편 사항 해결을 위한 에코시티 현안 주민 토론회'를 개최한다. 정동영 대표는 보도자료를 통해서 "최근 전주시 송천동 에코시티에 건설된 대규모 아파트단지 입주자 마무리에 따라 에코시티 인구가 3만명을 넘어서

고 있지만, 인근 상업시설이나 교육시설 부족 등으로 주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에코시티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정동영 대표를 비롯해 전주시 관계자, 에코시티 주민 200여명이 참석해 대형마트 입점과 중학교 신설, 철도변 소음 문제 해결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2022년까지 에코시티 입주 세대와 중학교 학생 수 증가로 24학급 규모의 중학교 신설이 시급한 가운데 지난 5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

가 봉암중학교 신설 재검토 결정을 내리면서 올해 9월 실시할 3차 심사 결과에 에코시티 주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에 정동영 대표는 주민들과의 협의를 통해서 봉암중학교 3차 심사를 통과해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또한 에코시티 내 1만 2000㎡ 규모 상업용지(2블록에 대형마트 입점이 지연됨에 따라 상업시설 부족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예정이다. 특히 에코시티 주민들은 이마트 입점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마트 등이 수익성 저조 등을 이유로 입찰에 부정적인 가운데 정동영 대표가 어떤 해법을 마련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김진성 기자

외교부, '정상 통화유출' 외교관 K씨 파면 중징계

외교부는 30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을 유출한 주미대사관 간부급 외교관 K씨에게 파면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또 K씨에게 통화록을 열람하게 한 대사관 소속 다른 외교관 1명에 대해서는 비밀관리업무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감봉 3개월 처분을 했다. 주미대사관 소속 참사관 K씨는 한미 정상간 통화 내용을 열람한 뒤 이를 고교 선배인 강호상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전달했다. /뉴스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maeil.com

송성환 전북도의회, 충효대상 수상

지방의정발전 기여
의회부문 금상 수상



송성환 전북도의회 의장은 30일 전주비올센터 2층에서 열린 '제6회 자랑스런 대한민국 충효대상 시상식'에서 의회부문 금상을 수상했다. 송 의장은 이날 도민을 대변하는 전라북도의회 의원으로서 충실하게 수행하고 아울러 전북발전 및 도민 행복을 위한 의정활동 지원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송 의장은 작년 7월 출범한 제11대 전라북도의회 의장으로 취임한 뒤 집행부를 대상으로 다양한 정책제안과 현장의정활동, 입법과제 발굴, 주요현안 선제 대응 등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했다. 송성환 의장은 "도의회 의장으로 서 당연한 의정활동을 펼쳤을 뿐인

데 뜻밖의 상을 수상하게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동료의원들의 의정활동 지원은 물론 도정 및 교육정책을 견제 감시하고 나아가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한 일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행사는 대한충효대상 제2위원회가 기업, 단체, 공무원, 일반, 학생을 대상으로 각 분야에서 열정적으로 활동한 대상을 수상자로 선정, 시상하고 있다. /김진성 기자

5급 이상 공직퇴임세무사 최소한의 수임 제한된다

평화당 유성엽 원내대표, 세무사법 일부개정안 발의



유성엽 민주당 원내대표 (정음·고창)은 5급 이상 공직퇴임세무사에 대하여 최소한의 수임제한을 법률로 정함으로써 세무행정에 만연해있는 전관예우를 근절하고, 세무사의 겸직금지 등을 통해 세무 업무의 공정성을 제고하는 내용을 담은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유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한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5급 이상 공직퇴임세무사는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할 때까지 근무한 세무관서의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사무와 관련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무대리를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수임 제한 스티를 위반시 벌칙(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세무사의 공인회계사·변호사 등 전문자격사 법에서의 겸직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진성 기자

김종희 의원, '농어업인 정년 70세 연장' 개정안 발의



자동차보험에 적용되는 농어업인 정년이 현재의 65세에서 70세로 늘어나 66세 이상 농어업인들이 사고를 당했을 경우에도 충분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회 농해수위 김종희 의원 (민중평화당, 김제 부안)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의 취업가능 연한을 농민의 경우 70세 이상으로 적용하도록 하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

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이하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법') 개정안을 30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보험회사 등이 보험금 등을 지급할 때 피해자가 농업인 또는 어업인이면 정년을 65세로 규정하고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다. 농업인 정년은 다른 육체노동자와 마찬가지로 60세를 적용해오다 2010년 법이 개정되면서 65세로 상향조정 됐다. 현행 농업인 정년대로라면 66세 이상의 농어업인이 교통사고로 사망해도 휴업손해비 등을 수령하지 못해 손해배상을 충분히 받을 수 없다. /김진성 기자

2019 대한민국 대표축제

문화체육관광부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www.firefly.or.kr

2년 연속 문화관광 대표축제 선정

무주 반딧불축제

Muju Firefly Festival

2019. 8.31 토 ~ 9.8 일

무주군